

# 안나린·최혜진 “신인왕 탈환 내게 맡겨라”

### LPGA 계인브리지 27일 개막 박인비·이정은·전인지 등 출격 백전노장 카리 웹 출전 관심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다 미국으로 무대를 옮긴 안나린(26)과 최혜진(2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루키로 첫 대회에 나선다.

안나린과 최혜진은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리톤의 보카 리오 골프클럽(파72·6701야드)에서 열리는 계인브리지 LPGA(총상금 200만 달러)에 출전한다.

지난주 올랜도에서 열린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이은 2022시즌 LPGA 투어 두 번째 대회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최근 2년간 대회 우승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29명만 출전했고, '폴 필드' 대회는 계인브리지 LPGA가 처음이다.

이번 대회부터는 2022시즌 신인들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신인왕 후보로 꼽힐 만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경쟁을 시작한다.

선두 주자는 지난달 LPGA 투어 웰리파잉(Q) 시리즈를 1위로 통과한 안나린이다.

K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두고 지난해 상금랭킹 9위에 오른 안나린은 Q시리즈에서 안정적인 기량을 뽐내며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아 이번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다.

KLPGA 투어에서 10승을 올리고 2018~2020년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한 최혜진은 Q시리즈 수석은 놓쳤으나 공동 8위에 올라 한참 전부터 버드런 미국 무대에 마침내 진출했다.

최혜진은 아마추어 시절인 2017년 US여자오픈에서 준우승하는 등 초청 선수로 출전한 LPGA 투어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터라 데뷔 시즌 활약이 주목된다.

이들은 2주 전 미국으로 떠나 현지 적응과 훈련을 이어가며 데뷔전을 준비했다.

LPGA 2부 시메트라 투어에서 활동하다 Q시리즈 12위로 경



안나린



최혜진

쟁력을 입증하며 정규 투어에 입성한 홍예은(20)도 기대주다.

이들을 앞세워 한국은 2015년부터 지켜오다 지난 시즌 농촌 LPGA 투어 신인왕 탈환을 노리는데, 외국 선수들의 면모도 만만치 않다.

Q시리즈에서 안나린에 이어 2위에 오른 폴린 루생-부샤르(프랑스), 지난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신인왕과 대상을 휩쓴 아타야 티피꾼(태국),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7승을 올린 후루에 아야카(일본) 등도 모두 이번 8대 회에 출전 예정이다.

타이를 방어전에 나서는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 지난주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교포 선수 대니엘 강(미국)을 비롯해 기존 강호들의 우승 경쟁도 이어진다.

신인 외에 한국 선수로는 개막전에서 공동 8위에 오른 박인비(34)를 필두로 이정은(26), 전인지(28), 김아림(27) 등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통산 41승을 보유한 48세의 백전노장 카리 웹(호주)은 2020년 11월 벨리컨 챔피언십 이후 모처럼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해 후배들과 기량을 겨룬다.

## 골프 세계 1위 '코스 불만'

### 은 램 "망할 코스 세팅, 너무 쉬워"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은 램(스페인)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회 코스 세팅에 불만을 터트려 논란이 됐다.

골프 소식을 주로 다루는 소셜 미디어 '플러스잇'은 램이 지난 22일(한국시간) 열린 PGA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라운드를 마친 뒤 18번 홀 그린을 벗어나면서 "망할 코스 세팅"이라면서 "이건 그냥 퍼팅 콘테스트"라고 중얼거린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이 영상은 중계방송 TV에 잡힌 게 아니라, 그린 옆에 있던 팬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 선수가 코스 세팅에 이렇게 거칠게 불만을 제기하는 건 이례적이다.

램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 코스 세팅이 티박스에서 그린에 이르는 과정에서 샷의 정확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여긴 것이라고 골프닷컴은 해석했다.

램은 쉬운 코스보다 어려운 코스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최근 3차례 우승은 코스가 어려운 US오픈, BMW 챔피언십,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거뒀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스타디움 코스, 니클라우스 토너먼트 코스, 라킨타 컨트리클럽 등 3개 코스에서 1~3라운드를 치르고 4라운드는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렸다.

2라운드를 니클라우스 토너먼트 코스에서 치른 램은 버디 5개에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를 쳤다.

특히 그는 당시 17번, 18번 홀 연속 보기를 적어내 기본이 상한 상태로 경기를 마쳤다.

논란이 불거지자 램은 "이곳은 아주 뛰어난 코스"라면서 "회원권을 산다면 여기를 사겠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따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하루에 6~7언더파를 못 치면 타수를 잃는 것"이라고 말해 본심을 드러냈다. 램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나올 동안 14언더파 27타를 쳐 공동 14위에 올랐다. 우승자 허드슨 스파워드(미국)는 23언더파 265타를 쳤다.

/연합뉴스

## 테니스 세계 2위 '코트 불만'

### 메드베데프 "뭘 더해야 메인 코트서 뛰나"

지난해 US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우승자 다닐 메드베데프(2위·러시아)가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코트 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메드베데프는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7500만 호주달러·약 644억원)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막심 크레시(70위·미국)를 3-1(6-2 7-6(7-4) 6-7(4-7) 7-5)로 꺾고 8강에 올랐다.

경기에서 이긴 메드베데프는 인터뷰에서 "메이저 대회 센터 코트에서 경기하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메드베데프와 크레시의 경기는 메인 코트인 로드 레이버 아레나가 아닌 마거릿 코트 아레나에서 진행됐다.

마거릿 코트 아레나는 로드 레이버 아레나 다음으로 큰 호주 오픈 경기장이다.

메드베데프는 "내가 직전 메이저 대회 우승자고, 이번 대회 가장 높은 시드 선수"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대회 1번 시드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받았지만 조코비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로 호주 입국 비자가 취소돼 출전하지 못했다.

실질적인 톱 시드 선수인 메드베데프는 그러나 이번 대회 16강까지 네 경기를 치르면서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는 두 경기만 배정됐다. 코트 배정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선수 랭킹이나 지명도 등을 고려하고 자국 선수에게는 어느 정도 가산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메드베데프가 치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 경기 중 하나는 호주 출신 닉 키리오스와 경기였기 때문에 메드베데프가 자력으로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 배정된 것은 한 경기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날 메드베데프와 크레시의 경기와 비슷한 시간대에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는 야니크 시니(10위·이탈리아)와 알렉스 디미오어(42위·호주)의 경기가 열렸다.

메드베데프는 "내가 매년 메인 코트에 넣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느냐"며 "하지만 나는 그렇게 불만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라파엘 나달(5위·스페인)은 16강까지 네 경기를 모두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치렀다.

/연합뉴스

# 호남대 출신 여원혁 감독, 유소년 축구 '성공 신화'

### 해체 됐던 해운대FC 1년만에 재건 2015년 이후 우승 21회·준우승 8회 "열정과 환경 만들어주는게 내 역할 기회 되면 호남대 감독 도전할 것"

호남대 축구학과를 졸업한 여원혁 해운대FC 감독(33)이 유소년 축구계에서 성공신화를 써가고 있다.

25일 호남대에 따르면 여원혁 감독은 지난 2009년 호남대학교 축구학과(학과장 장재훈)에 입학, 지도자의 꿈을 키웠다. 이후 선수 부족으로 해체 아픔을 겪었던 '해운대 FC'를 1년 만에 재건해 2015년부터 우승 21회, 준우승 8회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여 감독은 "선수 생활을 조기 마감한 제2의 여원혁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유소년 선수들에게 축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할 수 있는 방법,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축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초교 4학년 때. 학교(경남 남해군 성명초)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진해 덕산초등학교 코치로부터 축구부 입단을 권유받은 것. 축구에 우연히 발을 들인 그는 초교 6학년 때부터 중2 때까지 유소년 삼비군에 뽑혀 주목받았다.

하지만 잦은 부상 때문에 축구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고 고교 3년 내내 벤치를 지키다 선수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온갖 일을 전전하며 1년 여 동안 방황한 끝에 축구 지도자로 진로를 결정한 여 감독은 호남대의 문을 두드렸다. 이론적 지식 없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한계에 봉착할 것이



여원혁(왼쪽 두번째) 해운대FC 감독이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호남대 제공>

라는 생각이 들어 호남대학교 축구학과에 지원해 입학(09학번)했다.

여 감독은 2014년 2월에 해체된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축구부를 지도자 인생 동반자로 선택했다. 이후 해운대 인근 스포츠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선수들을 지도하기 시작했고, 2014년 10월 해운대초등학교 방과후 축구 강사에 지원해 지도자가 됐다.

그는 "제자들에게 진심을 쏟았던 스승, 최선을 다해줬던 스승으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지금의 해운대FC를 만든 것처럼 차곡차곡 준비하고 항상 공부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U-15, U-18,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 등을 거쳐 모교인 호남대 축구부 감독에 도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해적: 도깨비 깃발
- 2관 해적: 도깨비 깃발
- 3관 킹메이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4관 킹메이커
- 5관 킹메이커
- 6관 해적: 도깨비 깃발
- 9관 해적: 도깨비 깃발
- 7관 씨네카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쌍2게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도쿄 리벤저스
- 8관 씨네카를 특송, 경관의 피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광주서림교향악단 오타움 콘서트 I  
로미오와 줄리엣  
일시 : 2022. 01. 27.(목)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